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문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교회개혁 전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 가정

다음 주일(5월 3일)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및

어린이·어버리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오늘, 장애인주일

한국교회에 장애인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창 1:26).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장애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애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한 이웃들이 없는지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주일을 기하여 다시 한번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 3:8).

*오늘 찬양예배 시, 2009년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5월 교회 일정

3월(주일)	제4차 성찬식(1~5부 예배) 어린이·어버리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제7차 CMTCO(찬양예배 후) 정기당회(수오2부예배 후)
6월(수)	제7차 CMTCO(찬양예배 후)
10월(주일)	제7차 CMTCO(찬양예배 후)
13월(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수오1부예배 후, 여전도회)
16월(토)	총회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31월(주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생명의 밑줄 (금요찬양집회)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의 의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적, 긍정적인 면으로 설명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다(롬 3:21). 긍정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백이 없는 믿음의 의다(롬 3:22).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실존적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 율법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하시다(고전 1:30; 고후 5:21).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롬 1:16).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병행한다(롬 1:18).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후 5:17).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을 멸망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구속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전 1:18). 율법을 지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와 율법을 어기는 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롬 3:23; 갈 3:22).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다. 인간들 사이에는 인간의 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구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홀로 있으며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곧 우리들이라는 것이다(롬 2:10). 그러나 인간의 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들이다(롬 3:24).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인간들에게 값없이 가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롬 3:2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다(롬 3:2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가져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는 가져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의는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다(고전 1:30; 요 1: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인류의 역사상 정확히 그 시간에 인류 안에 임하여 인류의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인간을 종으로 삼았던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항상 자유함이 있다. 아멘.

REAL MEANING OF HOLY COMMUNION

(17) Now on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for You to eat the Passover?" (18) And He sai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say to him, 'The Teacher says, "My time is near; I am to keep the Passover at your house with My disciples." ' ' ' ... (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29)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atthew 26:17~29)

Holy Communion began during Jesus' last celebration of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Passover is an ordinance given by God that commemorates the day of Israel's deliverance from slavery, "when you enter the land which the Lord will give you, as He has promised, you shall observe this rite. "And it will come about when your children will say to you, 'What does this rite mean to you?' you shall say, 'It is a Passover sacrifice to the Lord who passed over the houses of the sons of Israel in Egypt when He smote the Egyptians, but spared our homes'" (Ex. 12:25~27). Actually, Jesus Christ is the real picture of the Passover. Israel was required to sacrifice an unblemished lamb for the Passover (Ex. 12:5), and Jesus is the sinless Savior,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Pet. 1:18~19). Jesus is the Lamb of God. He is the true Passover lamb. As He ate the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the Old Testament practice of Passover turned into the New Testament practice of Holy Communion. The Lord Jesus celebrated His last Passover and His first Holy Communion at the same table. Today we partake in this Holy Communion, given by Jesus, in commemoration of His sacrificial death. What does this rite mean to you?

Believers take bread to remind them of Jesus Christ's body,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Mt. 26:26). Jesus' body was the vehicle of His earthly ministry. He experienced fatigue, hunger, and temptation. He opened His arms to the needy and the lost. His body was tortuously whipped (Mt. 27:26), His scalp was torn by thorns (Mt. 27:29), people spat on Him and beat His head (Mt. 27:30), and His hands and feet were nailed to a cross until death (Mt. 27:35). Jesus took the pain and punishment to save you from death.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about His sufferings,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Is. 53:5). His sinless body underwent horrific humiliation and agony, so that God's amazing grace could come to you and me. The gospel that we share with others must always be centered on the cross of Christ.

Believers take the cup to remind them of Jesus Christ's blood,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Mt. 26:27~28). Jesus' blood is the blood of the New Testament. All the Old Testament sacrifices were temporary, year by year forgiveness of sins. They point to the cross, in that they were redemption types that needed to be observed under the Law. The blood of Jesus provides permanent remission of sins. God loves sinner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Rom. 5:8~9). Jesus' blood cleanses completely,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Jn. 1:7~9). This is the good news that those who have been redeemed must share with others. The blood of Jesus washes away our sins and makes us holy, so that we can fellowship with God.

Believers take the bread and cup to remind them of their blessed hope,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t. 26:29). That day is coming! That day is the promised second coming. Paul tells 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Cor. 11:26). Jesus is coming again! When He comes, believers will sit at His Table and eat and drink with Him. Jesus promises to return and share this special meal with believers in heaven. All believers can look forward to our eventual reunion in heaven with His joy and fellowship because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people, "instructing us to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desires and to live sensib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deeds" (Tit. 2:12~14).

My dear friend, Holy Communion should remind us that time is short. We must win souls while there is still time, for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Cor. 6:2). Let each Holy Communion service point us toward real evangelism. Please boldly proclaim this good news to your family, friends, neighbors, and colleagues. Now, let's come together and take Holy Communion in remembran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

성만찬의 참 의미

⁽¹⁷⁾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¹⁸⁾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 ⁽²⁸⁾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⁹⁾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7~29)



김성관 목사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마지막 유월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출 12:25~27).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실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출 12:5).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구세주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신약의 성만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한 식탁에서 마지막 유월절과 최초의 성만찬을 동시에 기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자들은 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 26:26).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주님은 피로와 허기, 시름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에게 팔을 벌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모든 채찍질로 찢기었고(마 27:26),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으며(마 27:29), 사람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렸습니다(마 27:30).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마 27:35).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주님이 당하실 고통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은 극도의 수고와 고통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잔은 우리를 위한 그의 보혈이다

신자들은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7~28).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해마다 죄 사람을 얻기 위해 드러졌던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한시적이었

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율법 아래서 드러져야 했던 구속의 형태였다면 점에서 볼 때 이 모두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죄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롬 5:8~9).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9). 이것은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다스 사탄들과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떡과 잔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을 준다

신자들은 떡과 잔을 받으며 그들의 복된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9).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약속된 재림의 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이 특별한 만찬을 신자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2~14).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얻기 위해입니다.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매번 행해지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진정으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 사람들,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나아와 우리의 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4. 22)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20)



백성은 구름·불기둥, 만나·메추라기의 기적을 매일 체험했었는데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이렇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총을 주셨건만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살 길은 단순 명료하다. 그 길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요 3:16,36). 세상가지에 따라 생각하며 이것저것 따지거나 주저하지 말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자(요 14:6). 생명은 놀라운 것들을 낳는다.

생명은 사랑을 낳는다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신 30:20).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요 4:10).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낳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한 사람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생명은 사랑을 낳는다.

마가복음 강해 68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유한 위선자들을 심판한다(12:38-44)

성으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었다. “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치의 의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막 12:38~3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말씀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 종교적인 전통과 예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막 2:16, 7:1,5). 소위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안이 되어 있었다(막 12:40). 소위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유도 ‘귀찮아서’ 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예수님은 재관관을 찾아와 감찰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밝히셨다(눅 18:4~5).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으신 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든지 보셨다(막 12:41).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기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자신들의 삶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헌금을 많이 냄으로써 자신의 재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그들에게서 찾기 힘들었다. 이것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막 12:42). 한 고드란트는 부자의 헌금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적은 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사람은 순종을 낳는다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랑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한다(신 30:20).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며 주님께 순종하여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요 3:3). 그러나 불순종할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당시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던 종교지도자들에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꾸짖으셨다(요 8:44). 그런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들의 선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와 심판을 받았다(렘 8:8,10~12, 11:4,13, 14:13~14).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쑥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요 1:12). 은총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요 10:27; 행 9:6).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사랑은 순종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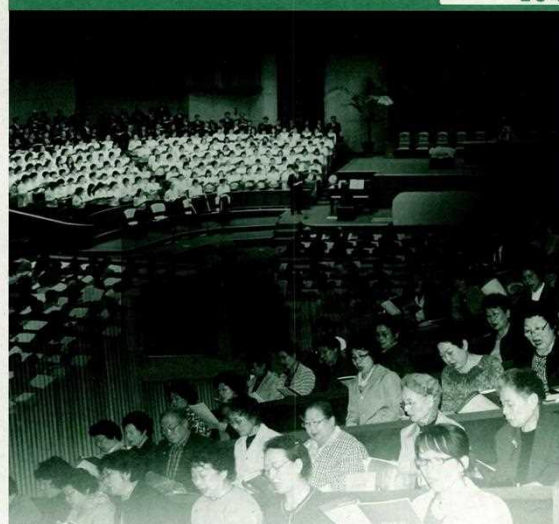
순종은 기회를 낳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으며 기회를 얻게 된다(신 30:20). 순종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진실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혹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여 맨 줄을 끊으셨다”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시 107:14~15). 우리는 심판의 때를 조율하지 못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고자 순종을 요구하신다.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빌 4:4~7).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있는가! 순종은 기회를 낳는다.

지금 우리 앞에 생명, 사랑, 복, 저주가 놓여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세상에서의 행복함 삶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자. 예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며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더 이상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갈진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막 12:43). 이것은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하늘의 계산법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심히 적은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막 12:44).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반면에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일부만 드렸을 뿐이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드림이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어느 종교지도자처럼 전통을 따랐을 뿐이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막 7:9). 결국 이들의 초점에서 말씀은 사라졌으며 전통만이 남은 위선자가 되었다(막 7:13).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막 13:1~2).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처럼 명예와 권위, 종교적인 예식과 전통만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자신과 성경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적인 종교인들, 위선적인 부자들, 불행 다른지 않게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믿고 순종하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것은 단 하나님 없다. 자꾸만 자신의 것이 있는 양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 종교인이나 부자들처럼 일부만을 드리고자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애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소망하는 순교자가 되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새 노래, 십자가의 은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내내 머릿 속을 뒤흔든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몇 주 전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금요일에 드릴 귀한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성금요일과는 달리 칸타타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내심 기대는 했었지만 마음 한 편에서는 그저 '배 내 치르는 절기 행사였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때면 찬양 연습 때마다 "어때요? 좋아요?"라고 물으시는 위임목사님의 질문에 속 시원히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저의 입술에서 칸타타 찬양곡인 <내 주를 가까이>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요찬양집의 시간에 연습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찬양의 가사 하나 하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마음속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길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 부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 원합니다." 새어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 건물 한 칸 구석으로 가서 눈물 흘리며 찬양을 부르니 또 얼마나 가슴 아프고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게 저의 성금요일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무의미하게 보였던 출퇴근 시간이 이젠 저만의 찬양집의 시간이 되어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가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신 은혜를 만끽 누렸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잊고 세상일에 몰두해 마음이 갈락해질 때면 찬양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다시금 내게 능력 주시고 날 붙드신대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은혜로 준비하게 하였던 칸타타는 기도와 상상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멋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생김 모양, 입은 오, 보지 않아도 생김이 같을 게 하나도 없는 이들이 모여 오직 한 이름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만 있었습니까.

오직 그 양의 즐거움을 바라고 기쁘게 십자가 지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하던지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천상에서 만류한 벗어 주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부를 새 노래, 영원토록 부를 찬송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 눈에 밝히 보이는 주님 앞에 드릴 그 찬송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누릴 수 있었으며 내가 나 된 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무엇이나, 승수는 것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삶과 피로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전제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지만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초대하신 그분과 함께 천성에서 드릴 찬양과 만찬을 기대합니다. "오직 홀 없고 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벧전 1:19). 이제 예수님으로 많이마아 허락되어진 은혜, 바로 그 새 노래를 소망합니다.

이승근(청년 1부)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번 사순절 기간과 성금요일은 제 삶에서 무척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번 성금요일 칸타타의 <거룩한 예수여>라는 곡의 혼성중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중창단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앞으로 투병생활 중이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한 연후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집안 사정이라는 세상적인 염려와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어 흔들렸습니다. 이런 저를 아시는 주님은 찬양대 중창단에서 함께 봉사했던 선배와 중창으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일 주일에 두세 번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금요일을 준비하는 중에 아버지는 위독해 지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가셔서 남은 가족들의 마음도 참 평안하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주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드릴 건 그저 감사와 찬양뿐이었습니다. 무사히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의 은혜로 금요 찬양집회 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세 번의 금요집회 순서와 성금요일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지휘자, 반주자 또한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길 기도하였고, 중창단원들 모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한 찬양의 제사장들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금요일 칸타타는 풍성한 찬양의 잔치였습니다. 칸타타를 연주하는 동안 찬양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참 놀라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되어 주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놀랍지 않나? 내가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 하늘의 천군 천사 함께 나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가사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찬사할 생각에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성전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성금요일을 앞두고 성대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찬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시방의 그늘에 놓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김로남(대학부)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매일 작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전 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셨는데 다시 이전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기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지금까지의 사순절을 형식적인 절기로 여겨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사순절을 형식으로 무더치 채 보냈습니까.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마음 속으로는 항상 '나는 주님이 우리 학교에 보내신 선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공부로 끝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이,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를 하여도 끝내고 천천히 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게을리하며 영적으로 나태해진 채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 사역 만마치에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에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에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건져내 줄 정치적인 지도자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저도 사실 돌아보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시는 도구란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어떤해 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순서임을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은 그동안 주님을 찾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무위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홍현(고등부)

참 생명의 소리로 넘쳐나는 에바다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풀편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키우리게 될 것이며 삶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소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울림에 민감한 주님의 사마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예배실로 찾아갔다.

에바다부는 정각장예를 가진 어린 학생부터 청년, 장년 및 노년층까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학생부와 성인부로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기(장로, 부경)



학생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각장예를 가진 학생들이 중심으로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시청각교재를 중심으로 수화로 말씀을 진행하며 찬양도 수화로 드립니다. 교사들이 모두 수화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수화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박인기(목사, 지도)

성인부는 본당에서 수화통역예배가 진행되는 3부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 오후 12시50분에 청년 이상의 성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 후 청년 및 남녀 선교회별로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분반공부 및 교제를 나눕니다. 역시 수화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윤영범(만수집사, 교무처장)



수화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의 눈동자가 교사에게 향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수화로 접할 수 있는 방편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도 다른 방편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학생들에게 분반 공부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침시간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씀을 차츰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볼 때 한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동연(교사, 베드로반)



장년반 성도 중에 강원도 청원에서 주일날 빠짐없이 오는 73세 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파 걸음을 자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전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손영숙(교사, 한나반)

에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 값으로 죽으셨고, 39일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교사의 사명을 짊어지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수화로 전하고 학생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진정 주님의 귀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임정희(교사, 루디아반)

현재 청년반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학생부 출신들입니다. 정말 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빡빡하고 개구장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엿하게 성장하여 믿음을 지키며 학생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최진원(교사, 청년반)



농어인학교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정민오 학생은 예배시간에 옮기도 하고 장난도 심했는데 지금 초등5학년이 되어 예수님과 십자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진(교사, 초등반)

수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할 때 복음, 진리, 믿음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공부시간에는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현주(교사, 초등반)



에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김 권(학생, 중등반)

에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유림(학생, 초등반)

에바다부는 손과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에수님을 만나고, 비록 듣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입니다. 황선태(학생, 바울반)

에바다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에수님 말씀을 듣고 에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좋아요, 수화찬양도 좋고 설교할 때 그림도 있고 사진과 동영상도 있어서 좋아요. 박스앤(학생, 중등반)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호칭(용어) 사용하기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병신, 불구자, 장애인	▶ 장애인	정신박약, 저능아	▶ 지적장애인
장님, 봉사, 소경	▶ 맹인(시각장애인)	정신박약, 양치기	▶ 지적장애인(하차장애)
귀머거리, 방머리	▶ 청각장애(청각장애인)	▶ 지적 못하는 사람	▶ 지적장애인
	▶ 듣지 못하는 사람	▶ 키 작은 사람	▶ 키장애인
정신병자, 정신질환	▶ 정신장애인	▶ 문맹병자	▶ 나병환자(한센씨병)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선교 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첫날 사역을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에야 비로소 '아,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났다. 처음엔 그저 외국인이 서툰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신기한지 우리를 보며 웃기만 했다. 그러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이야기를 듣는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으로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나를 사용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 주시고 이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간절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너무 힘들게 만난 사람들이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곳은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헤어짐의 아쉬움조차 내 인간적인 마음이란 걸 알면서도 헤어지기 아쉬웠다. 눈을 마주치며 웃고, 같은 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날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둘째날 밤에 부족한 언어 실력에 대한 불안함과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을지 의심을 가지자 사탄이 나를 시험해 왔다. 그러나 "씨뿌리고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라."는 찬송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선교지에 계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받는 기도의 응답은 더위와 낯선 환경에 지친 나를 힘이 내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였다. 그 밤이 지난 후 다음 날 사역지로 나갔을 때 감사하게도 의심은 다 사라졌다. "더욱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내 할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지난 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일만 남았다. 처음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사역 외에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그곳까지 불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다.

(메지히)(대학부 3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30일(목) ~ 5월 7일(목)	13교구 1팀	최현규
4월 30일(목) ~ 5월 7일(목)	16교구 1팀	구승희

현제 사역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3일(목) ~ 5월 1일(금)	6교구 1팀	김정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5일(수) ~ 4월 23일(목)	17교구 1팀	이정호
4월 16일(목) ~ 4월 23일(목)	20교구 1팀	석귀수



청지기칼럼

그리스도 없는 헛된 믿음을 버리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지금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때까지 약 50여 년 저의 신앙 생활은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삶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며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아시대에 달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비록 장대하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고한 이후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인 갈렙과 같이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 하며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특별히 올해부터 일마누엘 찬양대를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드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죄인을 알고 있고 2009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에 주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이다"(시편 16:1)의 말씀을 붙들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충성스런 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세진

(장로, 일마누엘 찬양대장)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9	조예진	13	중동1부	이수진(1)
620	조예진	12	유치부	박재귀(12)
621	유복순	11	소방부	김예지(11)
622	김시우	3	중동3부	최나현(1)
623	홍성준	23	대학부	전옥희(7)
624	차지환	8	중동1부	이숙희(1)
625	진옥희	11	소방부	김영희(11)
626	열민식	8	중동1부	장동주(2)
627	박성수	13	소년부	김금순(24)
628	주상규	22	장년3부	김옥자(18)
629	주상호	19	장년3부	장호진(7)
630	최은정	20	장년1부	이상숙(1)
631	김미유	2	소년부	황정원(2)
632	장재준	22	장년1부	이신동(8)
633	신승인	17	장년2부	조민희(7)
634	김준규	20	중동3부	김태균(17)
635	유재성	20	중동3부	위철홍(17)
636	정민욱	20	중동3부	박남인(17)
637	정성훈	8	중동1부	장 작(1)
638	김광주	20	장년1부	김정숙(20)
639	박홍진	24	장년3부	김영희(23)
640	김희희	20	장년2부	윤유진(2)
641	김상희	2	대학부	최희준(2)
642	한소리	16	장년2부	이재희(16)
643	김영희	4	장년1부	김세희(16)
644	이영희	16	장년1부	문정숙(16)
645	김재준	2	장년2부	최신준(2)
646	송준영	2	장년2부	최신준(2)
647	김승기	11	장년2부	김광선(8)
648	최희희	11	장년2부	김광선(8)
649	김영숙	16	장년2부	최신준(10)
650	김민서	13	유치부	하민준(2)
651	김영희	2	장년1부	이재희(16)
652	김재준	11	장년1부	위갑순(6)
653	최희희	2	고등부	이예주(2)
654	노홍순	26	장년1부	김영희(17)
655	이민정	21	장년2부	왕금희(17)
656	박경순	12	장년2부	김영희(17)
657	정진순	15	장년2부	김정희(9)
658	유복순	⑧	장년2부	김영희(6)
659	백소미나	9	장년2부	이서훈(16)
660	남희선	8	장년2부	권민숙(6)
661	김민서	16	장년2부	이재희(16)
662	김다빈	21	유치부	함진옥(21)
663	윤지현	16	장년1부	문정숙(16)

※ 결혼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